

호화룸살롱 「司正 찬바람」

서울 700곳중 100~200곳 휴폐업

重課税피해 서둘러 문닫아

요정도 대중음식점 전환 잇따라

점주의 과소비 및 퇴폐 사치품조개선 노력이 장기 화될 조짐을 보이자 호화 룸살롱 고급화 전략을 사치 성 업소들이 업종전환을 모색하거나 휴폐업을 서두르고 있다.

1인당 술값이 최소한 5만~40만원, 접대부일도 3만~10만원에 이르러 퇴폐향락의 대명사가 돼 온 이 업소들은 金泳三 대통령이 지난달 31일에 이어 3명의 「취임 1백일

기자회견」에서 「고급요정 등에 대해 세금율 증가세, 이런 업소들이 존재할 수 없게 해야 한다」고 천명하자 「하루라도 빨리 문을 닫는 게 살아남는 길」이라는 반 응을 보이고 있다.

이같은 현상은 특히 유 흥가, 밀집한 서울 강남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 나고 있다.

강남구역살롱 제일성명 뒤속천문살롱가인 T를 살롱의 한 종업원인 최은

두달동안 10명이상의 단체 손님 한 번도 없었고 그나마 두세명씩 오는 손님도 감소해 15개 룸 중 하 루 평균 3~4개에 손님 이 드나드는 정도는 종업원 일부만 내보내고 일상집 으로의 전업을 준비중이 라고 말했다.

서울시에 따르면 이미 이 주변에서는 지난 4월 이후 B를 살롱이 3개 고급 술집이 폐업했고 삼성동 의 대형 술집 K는 오는

11월까지 장기휴업계를 내 놓고 있다.

서초구 업소들도 마찬가지로 지역서 고급요정위와 법조 인등 유명인사들이 단골로 찾던 서초동 법원단지 주변 의 Y를 살롱도 손님아 거

을 닫았고 종업원도 상당 수가 떠났다고 말했다. 한편 서울시장계에 따르 면 88년말 한때 1천1백 여개에 달하던 룸살롱이 2 일 현재는 6백50개, 요정



오늘 환경의 날
한국환경보호연합회 회원들이 4일 서울역광장에서 「환경보호부채」를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다. 전국의 환경보호단체들은 5일 제21회 세계환경의

은 1백여개에서 52개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.